



#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22년도 제2호

영혼의 메아리는 크고나 일몰후나 영도 될까  
너머로

“축성 생활은 많은 사람이 하느님을 주목하지 못해도  
세상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보는 예언자적 관점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외침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2019년 2월 2일 강론 중에서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http://www.churchinneed.or.kr) | 전화: 02-796-644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mailto: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탈리아 테르메 라메치아 글라라 관상 수녀회  
© Ismael Martínez Sánchez / ACN

후원자 여러분의 충실하고 너그러운 후원 덕분에 수십 년 전부터 전세계 수천 명의 수도자를 지원한 것은 ACN의 사명 중 매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흔히 교회의 현존은 오직 가톨릭 수도회들을 통해, 그리고 결실을 맺는 그들의 활동적인 이웃사랑을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파트너들의 국가뿐 아니라 우리의 고국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수도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들의 영적 체험에 참여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팬데믹 동안에도 우리에게 확신의 미덕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걱정을 부정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해결의 단초를 찾도록 도와주는 미덕입니다. 이 확신은 우선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 내면의 선함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우리의 재능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둡니다.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우리가 주님 부활 대축일에 경축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축제를 통해 이 굳건한 신뢰의 힘을 길어 올려 우리가 지금의 곤경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게 하소서!”**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축성 생활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뜻깊은 것입니까? 그 생활이 무엇에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세상과 잘 지내지 못하며 자신에게서 도피하고 싶은, 다른 이와 동떨어진 이를 위한 삶이 아닙니까?’ 누군가 자신의 경력과 자유, 결혼과 가족까지 포기하면서 수도원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이 이처럼 물이해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축성 생활은 포기에 우선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고요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축성된 사람은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 나라의 실재를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장 깊고 가장 큰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 찾을 수 있을 뿐, 물질적 소유나 스스로 결정하는 삶, 인간적 관계에서는 찾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감동하여 자신의 「고백록」에서 고백합니다. “오 하느님, 당신은 당신을 향하도록 저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정결한 봉헌으로의 성소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 안에, 규명할 수 없는 하느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 안에 기반합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 집과 농장, 재산과 고향, 모든 것을 떠납니다. 그리스도의 ‘보다 친밀한’ 제자가 되겠다는 결정, 보수도 없이 헌신적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입니다. 콜롬비아의 첫 성인 라우라 몬토야 수녀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촌에게 하느님의 이 강력한 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래, 수녀들은 네 말처럼 정말 미쳤어! 하지만 그것은 내가 모르는,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야. 그것은 치유되지도 않아.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축성 생활에서 비롯된 독신 생활은 성령께서 교회와 세상에 주신 특별한 은사이며 과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젊은이, 약혼자와 부부, 부모, 독신자, 미망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구세주 예수의 성심과 성부의 의지와 완전히 하나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치는 성체성사 안에서 가장 고귀하게 표현됩니다.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의 선물인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축성되어 성심 곁에 살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는 말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 사도처럼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체성사의 영혼이 되는 것, 하느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우리 안에 일으키도록 내어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 의지의 자유로운 동기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자유롭게 봉헌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은총 가득한 부활시기 되시길 바랍니다.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 하느님을 위한 ‘화원’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맨발의 가르멜회’를 설립했을 때 성녀의 고해 신부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께서 [...] 휴식을 위한 집, 위안을 위한 집을 원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택받은 이 영혼들이 있는 화원을 원하셨고, 그들 가운데서 쉬고 그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마음을 터놓고자 하셨습니다.”



모잠비크 맨발의 가르멜 수녀회  
파티마의 성모 수녀원

가르멜회 수도자의 성소는 고요와 은거 속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끊임없는 기도로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친밀함을 가꾸가는 데 있습니다. 리지외의 성녀 테레사가 그 핵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가슴 속에서 나는 사랑이 되려고 합니다.” 소화 테레사 성녀의 삶은 사랑으로 인해 값비싼 향유처럼 자신의 삶을 ‘쏟아붓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많은 나라에 가르멜회가 있고, 수녀들은 기도 중에 전 인류의 고통을 기억합니다. 모잠비크 마푸토 근교에 2019년에야 비로소 신축 수도원 한 곳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파티마의 성모님께 봉헌되었습니다. 네 명의 서원자로 시작된 수녀원에 그사이에 벌써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입회했습니다.

이 가르멜회 수녀들은 제병 제작으로 생계비를 벌고자 합니다. 이런 일은 관상 수도회 수녀들에게 이상적인 활동으로서, 끊임없는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고 게다가 지역 교회를 위해 가치 있는 봉사이기도 합니다. 48개 본당에 약 80만 명의 신자가 있는 마푸토 대교구에서 제병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제병을 부분적으로 수입까지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제병 제작용 기계를 구입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계의 가격은 모든 부속품을 포함하여 약 23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젊은 공동체에 창업자금을 후원해주시겠습니까?

그에 반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스톱에 있는 가르멜회 수녀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립 직후에 보스니아 내전으로 인해 수도원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녀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자마자 가방도 풀지 못한 채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수도원 가까이에 전선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전이 끝나고 5년이 지난 2000년에 마침내 그들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재건된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개인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그렇게 심한 상처를 입은 바로 그 나라에서 관상 수도회 수녀들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도에 온전히 몰두하기를 바랐습니다. 사라예보 대교구장인 빙코 풀리치 추기경은 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에게나 무슬림에게나 하나의 상징’인 가르멜회 수녀들의 존재에 대해 지금까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녀들은 얼마 되지 않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ACN이 약 390만 원의 생계지원으로 여섯 명의 수녀를 후원할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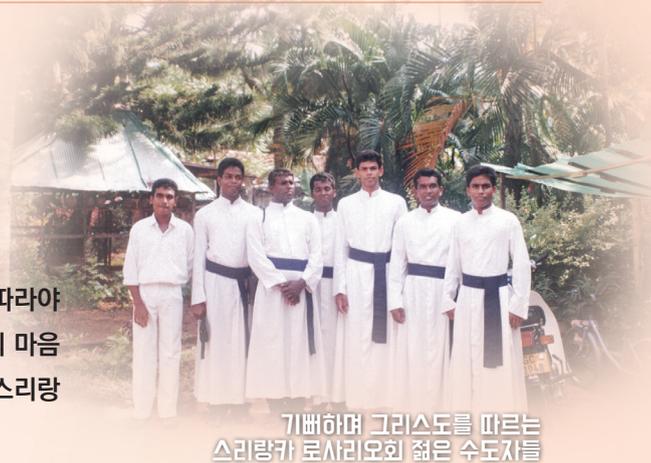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맨발의 가르멜 수녀회  
하느님 현존 안에서 삶, 노동도 기도입니다



## 십자가의 어리석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 16,24) 예수님의 이 말씀은 2천 년이 넘도록 줄곧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단호히 주님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1886년에 현재의 스리랑카에서 태어난 바스티암필라이 안토니필라이도 그랬습니다.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스리랑카 로사리오회 젊은 수도자들

수도회에서 토마스 신부라고 불렸던 그는 밤에 거의 세 시간도 잠을 자지 않았고 몸이 허약함에도 엄격한 참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928년에 아시아 최초의 현지인 관상 남자수도회인 로사리오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층 계급 출신의 젊은이들도 수도회에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 자신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1코린 4,10)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그의 공동체의 모토로 선택했습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 오늘날까지 그것은 세상에서 걸림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가 기도와 참회의 엄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로사리오회 수도자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수도원장 프란치스코 제야실란 신부가 31명의 로사리오회 수도자들의 이름으로 ACN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매일 우리 이웃들이 죽어가고 저희 동료 수도자 하나도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 몰락은 끔찍합니다. 생계비가 ‘천문학적’ 높이로 치솟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자신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인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저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로사리오회의 이름으로 ACN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음식을 구입하고 다른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구조신호에 대해 ACN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응답하고자 합니다. ACN은 약 3650만 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도미니코회 수도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통해 성덕의 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성덕을 찾는 사람은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교회는 항상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박해와 차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일상에 속합니다. 본당, 학교와 교육기관,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미니코회 수도자 56명은 신자들 바로 가까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힘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전부 내어줍니다. 관구에서는 수도자들의 기력이 다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그들 스스로의 영적 생활을 심화시키기 위한 1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수도자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요청과 문제들에 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획을 위해 ACN은 약 182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파키스탄 도미니코회 수도자들



# 의지할 곳 없는 곳에서의 위로

규므리에 있는 아르메니아 가톨릭 교회의 고아원 어린이들이 빵과 소금, 꽃과 노래로 ACN에서 온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나들이 옷을 입었지만 그 작은 얼굴들이 진지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환영 인사를 위한 빵과 소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가정 형편이 아무리 몰락했다 해도 결코 우리가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고아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 하귄타 무라디안 수녀가 설명합니다. 35명의 어린이가 이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찾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아이들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잠을 자도록 합니다.”

스스로 어머니가 되지 않고도 수녀들에게서 위대한 모성이 애가 빛납니다. 이제 겨우 두 살인 엠마누엘은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러시아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형, 누나와 함께 고아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엠마누엘은 스프푸히 포가시안 수녀에게 매달려 수녀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이 다정하게 엄마라고 부릅니다. 포가시안 수녀는 수녀가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항상 아이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수녀가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식탁에 앉아 있는 어린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수녀회’의 아르메니아 가톨릭 수녀들은 격변의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1847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설립된 수도회는 가난한 소녀들의 교육에 헌신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이후 수녀들은 시리아와 레바논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철의 장막이 붕괴된 후에야 비로소 수녀들은 아르메니아에서도 그들의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규므리에 고아원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아원 밖에서도 수녀들은 전력을 다합니다. 스프푸히 수녀는 주변 7개 마을에서 교리수업을 담당합니다. 수녀들은 ACN의 후원을 받아 1994년부터 계속 ‘하

느님과 함께 하는 방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백 명의 어린이가 참가했으며 그 가운데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출신의 난민 어린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알리사가 들떠 말합니다. “제가 가본 중에 가장 좋았던 캠프예요. 정말 행복한 날들을 보냈고 소품들도 굉장했어요. 기도문도 많이 배우고 제 삶을 위한 다른 중요한 것도 배웠어요.” 또 많은 어린이에게 캠프가 세례 성사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수녀들은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약 50개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스정류장 근처의 쓰러져 가는 건물에서 그런 가정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70세의 고하르는 1988년의 큰 지진에 집을 잃고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만난 암 환자 수산나는 병색이 완연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스프푸히 수녀가 수산나를 방문하러 올 때마다 선물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단지 생필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깊은 위로입니다.



엠마누엘은 수녀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ACN은 다른 100개국 수녀들의 사업과 똑같이 아르메니아 수녀들의 사업도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시겠습니까?



고하르와 아나히트 남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스프푸히 수녀 © Ismael Martínez Sánchez / ACN



# ACN 설립 75주년

## 하느님을 위한 성채

동독과 서독 국경에, 바로 철의 장막을 따라서 위치한 수도원들은 ‘공산주의에 맞선 보루’가 되어야 했습니다. ACN은 1952년부터 그 수도원들의 건축을 지원했습니다. 이 ‘하느님을 위한 성채’는 각기 교회, 수도원, 피정의 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곳들은 기도와 ‘사도직 열정의 중심점’이 되었으며, 또한 서독의 대부분 개신교 지역에 살고 있는 동독 난민들의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던 사제들을 위한 전진기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분단된 유럽 안에서 그리스도교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된 독일은 특히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문 앞까지 공산주의가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군사적 거점보다 그리스도교의 ‘발전소’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ACN은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동독에서 피난 나온 수많은 사람을 위한 사목적 돌봄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끊임없이 증가했고 그들은 교회 센터들에서 영성 센터들에서 사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헤르나우 수도원은 특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체코에서 피난 나온 성체수녀회 수녀들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전쟁 후 수년간 좁고 건강에 해로운 조건에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젊은 여성들이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어떻게든 가능한 한 동유럽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과를 거두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에는 슬라브어 계통 언어들의 습득도 들어 있었습니다. ACN의 과거 활동명 ‘동쪽 사제들의 지원’은 네덜란드 가톨릭 신자들의 후원으로 성체수녀회를 위해 새로운 본원을 건립했고, 1959년에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살펴보면 수도원들은 언제나 ‘신앙의 성채’이고 ‘기도의 발전소’입니다. 특히 관상 수도회 수도자들의 기도는 본당들에서의 활발한 사목을 열매 맺게 합니다. 수도자들은 새로운 성소를 위해 기도하고 날마



헤르나우 수도원 신앙의 성채 앞의 두 명의 수녀들

다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는 사제들을 위해 힘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1년 전에 페루 아야비리의 당시 주교가 페루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속하는 자신의 성직자치구에 관상 삼위일체수녀회 수녀들을 초대했습니다.

**사제가 부족하면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교회와 소원해지게 됩니다. 수녀들은 철저한 은거와 침묵 속에서 생활하며 하느님께 기도하고 희생과 참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 많은 젊은 여성의 마음을 끌어당겨, 네 명이었던 수녀의 수가 그사이에 1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녀들의 평균 연령은 약 32세입니다. 그런데 수녀들의 생계를 위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수녀들이 자체 제작한 제의와 다른 생산품들을 거의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CN은 이들과 또 다른 전 세계 관상 수도회 수녀 2100명 이상을 후원합니다. ACN이 70년 전에 지원할 수 있었던 처음의 ‘신앙의 성채’의 전통 안에서,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수도원도 ‘하느님을 위한 성채’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야비리의 삼위일체수녀회의 수도자들, 기도와 침묵 속에서 지내는 오늘날의 속성 생활

##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1917년 7월 13일 파티마에서 약 5천명의 순례자들 앞에 세 번째로 발현하신 성모님은 세 어린 목동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세계의 평화와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매일 묵주기도를 계속 바치기를 바란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지금의 1차 세계 대전에 이어서 또 하나의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나의 성심에 러시아를 봉헌할 것을 부탁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또한 매월 첫 토요일에 배상의 영성체를 바치고 세상의 죄에 대한 속죄로 만들어라.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면, 러시아는 회심하여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러시아는 자신의 잘못을 세상에 퍼뜨려 또 다른 전쟁과 교회에 대한 박해를 가져올 것이다. 선한 이는 순교할 것이며, 교황 또한 고통받을 것이다. 어떠한 나라들은 전멸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성모님께서 여전히 부족 하시며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실질적인 봉헌입니다.” 1992년 하느님의 종 루치아 수녀

우크라이나의 평화는 곧 우리 모두의 평화입니다.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

사랑하올 천상의 우리 어머니,  
파티마의 성모, 평화의 모후님!

파티마의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 두 성인과  
하느님의 종 루치아 수녀님,  
이 어린 목동들의 중재를 통하여,  
여전히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작고 가련한 자녀인 저희가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세상에 오직 평화를 얻도록 전구를 청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는 모든 곳을 위해,  
특히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증오와 폭력을 겪는 무고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소서.

어머니이신 당신의 사랑과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죄인들의 회심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전 세계를,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봉헌하나이다.

저희는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작은 희생을 실천하며,  
저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저희의 부모님과 함께,  
매월 첫 토요일에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을 기리며  
미사를 봉헌하고자 하나이다.

평화의 모후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인준  
(2022. 03. 31)



## 하느님 사랑과 자비!

사순시기를 앞둔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서는 이번 재의 수요일에 전쟁의 광기로부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인이 마음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시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단식을 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본래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돕기(ACN)」은 2022년 사순 부활 캠페인으로 고통받는 교회의 신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ACN은 2월 25일 100만 유로(한화 약 13억)를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의 혼돈 속에서 “우리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We can not be anywhere else!”)라고 외치며 그 땅을 떠나지 못하는 국민들과 그들을 돕기 위해 끝까지 남아 있는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고아원에서,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위한 보호소에서, 전쟁의 결과로 치솟는 물가와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신자들과 난민들과 함께 하는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있기에 마땅히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후원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에서 당신의 공적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요한 14,27)라는 평화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세 차례에 걸쳐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20,19.21.26)라고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고,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요한20,22-23).

평화는 하느님 나라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평화는 하느님의 창조의 뜻이 모든 존재에게 온전히 회복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누리

던 평화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첫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지배하여 하느님 역할을 갖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 힘을 갖고 그 힘으로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 우위에 서려는 유혹으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최악의 뿌리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에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힘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어 본래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20,21)

이처럼 예수님 부활의 인사에 평화가 선물로 주어지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전쟁의 회오리 안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정치적 이익이 떨치는 위세를 막아내는” 동시에 “모든 이의 정당한 바램을 보호하는 지혜”를 호소하십니다. 갈릴래아 호수의 풍랑 속 고깃배 안에서 겁에 질린 사도들에게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당신의 강한 손을 들어주시도록 간절히 아뢰는 기도를 함께 바쳐야만 합니다(마르4,39 참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성령의 힘을 받아 평화의 사도로 파견된 우리 모두 사탄이 유혹하는 소유와 지배의 유혹을 이겨내고 본연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We can not be anywhere else!”)라고 외치며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끝까지 남아 있는 사제들과 수도자들과 동참하며 주님께 응답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곧 우리 모두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중한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봄으로 피어나기를 저 또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 다 읽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통받는 교회 돕기

검색

